

방통위원장 ITU 아태 규제라운드테이블 참석 및 EBS-베트남 협력사업 지원 결과보고

2014. 7월



국제협력팀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주요활동 및 성과	2
III. 호주 출장 결과	4
1.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4
2. ACMA 양자면담 및 MoU 체결	15
IV. 베트남 출장 결과	16
1. 재무부장관 면담	16
2. 정보미디어부장관 면담	17
3. VTV 사장 면담	18
4. 부총리 면담	19
붙임. 회의 발표 및 면담 사진	20

I. > 출장 개요

□ 출장목적 및 개요

- (호 주) ITU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규제기관 협의체인 ‘아태 규제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ACMA)과 MOU 체결
- (베트남) EBS가 베트남 국영방송사 VTV와의 MOU체결을 계기로 현지 진출을 추진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 및 방송사 간 협력지원 필요
 - ※ VTV(Vietnam Television) : 1970년 설립된 베트남 국영방송사, 지상파 6개 채널, 케이블 51개 채널, 위성 21개 채널 운영
- 출장기간 : ‘14. 7. 19(토) ~ 7. 25(금), 5박 7일
- 출장국가 : 호주(시드니), 베트남(하노이)
- 출 장 자 : 위원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홍보협력담당관, 국제협력팀장, 국제협력주무관, 수행비서 등 6명
 - ※ 인터넷진흥원 직원 업무지원, 기자단 동행

□ 주요 활동

-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석 및 이용자보호 세션 발표
- 호주 방송통신미디어청(ACMA)과 MOU 체결
- 베트남 부총리, 재무부장관, 정보미디어부장관 면담 및 VTV 방문

□ 주요 논의 내용

-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논의
- 방통위 - ACMA 간 MoU 체결 이후 정책 및 인력 교류 논의
- 한 - 베트남 방송·통신 교류 및 EBS 교육방송모델 도입 지원 논의

II. > 주요활동 및 성과

① ITU 아태 규제자 라운드 테이블 회의 참석 (시드니)

- ITU 아태 방송통신 규제기관 회의로 4회째며 24개국 60여 명 규제기관장 참석, ‘13년엔 우리나라에서 개최
- 올해의 주제는 “융합을 너머-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 임
 - 네트워크사회에서 규제자와 정책입안자, 사업자,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 간 균형, 온라인 콘텐츠정책, 이용자역량 강화 등 논의
-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통합이용자보호법 제정 현황 등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융합시대에 대비한 아태지역 국가 간 협력 필요성 제안

< 주요 발표 내용 >

- ◇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될수록 기존 각 분야의 규제의 틀만을 적용하면 이용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게 됨
- ◇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 이용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현재 입법이 진행되고 있음
- ◇ 나아가, 이러한 융합시대에 대비한 아태지역 국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② 호주 방송통신 미디어청과의 MOU 체결 (시드니)

- 호주 방송통신 미디어청^{주2)}과 MOU를 체결하여, 방송통신 정책, 차세대 방송서비스 정책협력, 직원교류, 전문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기로 함

주2) ACM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호주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 주요 논의 내용 >

- ◇ 한국드라마의 방영 및 **방송분야의 공동제작**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한국의 **방송채널들이 송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

③ 베트남 EBS 교육방송 사업모델 진출 지원 (하노이)

- 부총리, 재무부·정보미디어부 장관, 베트남 국영방송 사장 등을 면담하고, EBS와 베트남 국영방송사 간 교육방송 분야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

- EBS의 교육방송 모델을 베트남 국영방송사(VTV)에 전수, 자문하는 사업으로서 베트남 정부의 지지를 확인하고, ‘**교육한류**’ 지원

※ 올 하반기 베트남 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15년 1월 베트남 교육방송 개국 예정임

- 또한, 정보미디어부와 인터넷 윤리, 사이버 안보, 이용자 보호 등 분야의 협력과 함께, 베트남 디지털 전환 시 한국의 경험을 전수기로 함

< 주요 논의 내용 >

- ◇ CJ E&M 드라마 공동투자/공동제작을 출발점으로 해서 양국 간 **공동제작 활성화**를 제안하고, 교육방송 모델뿐 아니라 인터넷으로 구현 가능한 **e-러닝 시스템**까지 도입해달라고 요청

Ⅲ. 호주 출장 결과

1. ITU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 개 요

- ITU 아태지역 회원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
 - 방송통신 규제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를 공유해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 1차 호주, 2차 인도, 3차 한국 개최, 4차 말레이시아 개최 예정

□ 제4차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주요 프로그램

- 기 간 : 2014. 7. 21(월) ~ 7. 22(화), 7. 23(수)~25(금) 실무교육프로그램
- 장 소 : 호주 시드니, L'aqua
- 주 제 : 융합너머-네트워크 사회(Beyond Convergence - the Networked Society)라는 주제 아래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하는 규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각국 사례 공유

< 제4차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 >

날짜	시간	프로그램
7/21(월)	09:00~10:00	개회식
	10:00~12:00	<세션 1> 규제자의 진화 : 국내 상황
	13:30~15:00	<세션 2> 규제자의 진화 : 국제 협력
	15:30~17:00	<세션 3> 방송통신 분야의 변화 : 이용자의 기대 변화 ※ 방통위원장 발표
7/22(화)	09:30~11:30	<세션 4> 네트워크사회의 규제환경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11:30~12:00	<폐회식>

제4차 아태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주요 논의 내용

□ 세션1. 규제자의 진화 : 국내 상황

- 페이스북, 트위터, 클라우드 서비스, 4G, OTT 등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시장경쟁은 가속화 되고 있음.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규제자들은 이용자 보호, 인터넷 서비스 접근성 확대, **효과적인 규제**,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해관계자**(이용자, 업계 관계자 등)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국내 및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를 공유해야 함
- 또한, 규제기관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규제정책** 면에서는 **연구와 정보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함. 아울러 **각 분야와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공조** 노력이 필요함
- 대중의 잘못된 인식 개선을 위해 **규제기관과 이해 관계자의 소통**이 요구됨. 동시에 일반 대중의 참여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규제기관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세션2. 규제자의 진화 : 국제 협력

- 사이버 공격의 확대 및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사이버 위협 및 보안 관련 정보를 정부와 업계가 공유하고, 정보통신보안 전문가 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규서비스 도입**으로 촉발된 국경간 데이터 이동은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야기하고 있으나, 관련된 각 국가의 **국내법이 각기 다르고**, **국제 공조노력**은 아직 초기단계임
 - 통합된 국제법 도입이 최선의 방법인지, 현 데이터 규제관련 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의 사안이 논의됨
- **망중립성** 이슈에 관해서 업계의 혁신과 효율성을 추구하되 인터넷 접근성을 보장하는 노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
 - 이를 위해 최소한의 **서비스수준 유지**(Quality of Service), **공정거래** 및 **상호연결 관련 법규준수**, **정보 투명성**(인터넷 속도 등)이 지켜져야 함
-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상호 이익을 위해 **로밍 요금**을 내려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규제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공조노력**이 필요함
 - 규제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로밍요금 정책**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 콘텐츠 규제와 관련해,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콘텐츠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외국 사이트**(Youtube)는 **대응이 어려움**. 또한 대부분 **불건전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션3. 방송통신 분야의 변화 : 이용자의 기대 변화

- 통신기술의 발달과 디바이스, 서비스, 네트워크 등 부문에 융합에 따라 이용자들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
 - 서비스 제공자들은 신규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음.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기기보다 스마트 폰의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 상황
- 규제자들은 서로 다른 서비스영역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과, 기존 법규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서비스(OTT 등)의 관리, 콘텐츠 규제, 주파수 할당 등 융합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음

□ 세션4. 네트워크사회의 규제환경 :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체 요약 및 정리)

- 기술 발달에 따라 통신 수단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ICT 이해관계자와 규제기관은 앞으로도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임
- 네트워크 시대에서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콘텐츠와 관련성이 높고 불가분의 관계임. 규제 프레임워크와 협력관계 또한 이와 같이 변화하는 환경과 맥을 같이 해야 함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가 융통성 있게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함. 또한 정책적 구체책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변화하는 시대에 업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랜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기관과 정책입안가가 ICT시대에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해서는 공조노력을 해야 함

<참고2>

ACMA-ITU Asia-Pacific Regulators Roundtable Final Outcome 2014년 7월 21일-22일

ACMA-ITU 규제자 라운드 테이블은 호주 ACMA와 ITU의 공동 주최와 호주 정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의 지원으로 “융합을 넘어-네트워크 사회”라는 주제로 2014년 7월 21일, 22일 양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음. 전 세계 24개국에서 56명의 규제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했으며, 호주 및 한국의 언론이 개막식을 취재했음

ITU아태지역사무소 대표 샤미르 샤르마의 환영사, ACMA청장 크리스 채프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일간의 공식일정이 시작되었음. 각국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여하여 네트워크 시대에 정보통신, 방송, ICT 융합 분야의 규제자 역할에 관해 전략적 논의를 하였음. 또한 실제 사례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음 (각 세션의 연설자와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를 참조). 각 세션의 요약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세션 1 결과

ICT의 영향은 통신, 방송, 정보 분야에서 사회의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규모와 범주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자 범주 또한 ICT 가입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네트워크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e어플리케이션(e-application), 크로스 미디어(cross media), 온라인 미디어, 사이버안보, 네트워크 복원력, 개인정보

보호, 주파수할당 등 새로운 규제영역이 등장했음. 이용자보호와 서비스 품질(QoS)은 새로 변화하는 환경에 중요한 이슈로 꼽힘.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규제자는 이용자, 정부, 산업계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네트워크 사회에서 ICT의 강화된 역할은 현행 규제 및 법 체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함. 규제자들이 적절히 유연성을 발휘해서 역동적인 ICT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가 바탕이 되어야 함. 한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규제자들이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음. 이 외에도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와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공조 노력이 필요함

네트워크 사회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변화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접근방법이 필요함.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적절한 체제가 선행 되어야 함. 또한 디지털 시민(이용자)이 온라인 환경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규제기관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연구, 업무절차, 신기술 습득,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도입 등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함. 오늘날 규제기관은 조직적인 복원력, 유연함, 기민함 등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역량이지만, 관련 규제정책면에 있어서는 연구와 정보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요구사항이 많고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중과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규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함. 소셜 미디어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경영진 회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대화창구를 활용하여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소통을 지속해야 함. 대중의 참여를 높이고 인식을 제고하는 일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규제자들이 꼭 밟아야 하는 절차임

□ 세션 2 결과

ICT 관련 이슈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사이버안보 또한 중요한 규제문제로 대두되었음.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인 ICT에는 적절한 수준의 보호 프레임워크가 필요함. 안보강화 및 주요 정보통신인프라의 복원력 강화, 적절한 정보통신안보 규정 도입, 정보통신 전문가 풀 양성에는 국제적 공조노력이 매우 중요함

클라우드 컴퓨팅을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촉발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은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야기함. 규제자들은 데이터 레지던시(data residency),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와 데이터 통제부족 등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국경 간 데이터 전송과 국내 법 체제와 국제법 간의 괴리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대두된 상황임

아태지역 규제자들은 네트워크 중립성과 상호운용성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해왔음. 인터넷 접속에 대한 지나친 규제 지양과 OTT 등 신규서비스 등장으로 야기된 시장 내 경쟁 문제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하는 것 또한 규제자들이 직면한 도전과제 중 하나임

국제 로밍요금(음성 및 데이터)인하에 관한 이슈 또한 대부분의 아태 지역 규제자들의 공통 관심사였음.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로밍요금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 로밍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로밍 요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서 양자 혹은 역내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고, 규제자뿐 아니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협력 또한 요구됨

국제적 협약 없이 로밍요금을 줄이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고 또한 시간낭비이며,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 없이는 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규제자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로밍요금 정책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서비스이용자가 소위 로밍요금 폭탄에 맞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음

□ 세션 3 결과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융합, 새로운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이용자 행동과 기대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 데이터 규모 증대, 실시간 기대, 신규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이용자 또한 영향을 받고 있고 이용자 보호 프레임워크, 규제대응과 부족한 자원(예, 주파수) 할당 등 이슈도 규제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높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법 규제와 시장경쟁(OTT서비스)로 인한 도전과제가 등장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서비스 품질을 기대함과 동시에 규제의 복잡성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임

소셜미디어 측면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임. 하지만 m-러닝, m-뱅킹, m-헬스 등 어플리케이션은 개도국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

네트워크 사회에 이용자보호 이슈가 갖는 광범위한 함의를 고려하여, 정책, 법안, 규제, 제도, 시행계획을 포함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 관점에서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뿐 아니라 빅데이터 관련 이슈를 짚어볼 필요가 있음.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 중인 이용자 보호조치에 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에로사항 및 문제점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찾아낼 필요 있음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서비스 품질(특히 실제 전송속도와 계약 당시 고지 받은 속도, 공정한 사용정책) 문제는 아태지역 규제기관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음. 서비스품질에 관해서, 표준을 정하고, 모니터링, 출판, 독립적 감사활동을 통한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제기관들이 앞으로 검토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로 언급됨

□ 세션 4 결과

ICT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방식은 지난 수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폭발적인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도입됨에 따라, ICT산업

이해관계자와 규제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네트워크 사회에서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콘텐츠와 연관성이 깊음. 규제 체제와 공조노력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함. 특히 규제체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규제와 경쟁상황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정책적 구체적 실행 시 업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와 직면한 도전과제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변화의 시대에 사업자들은 비즈니스플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네트워크사회에서 규제자와 정책입안가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이들 간의 공조노력이 필요함. 규제자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정책입안가, 사업자, 이용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일임

온라인 콘텐츠는 아태지역의 일부 규제자와 정책입안가들이 안고 있는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임. 전세계적으로 규제기관들이 각국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국내에서 다른 규제기관들과의 부문 간 공조노력도 필요함. 인식제고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규제기관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 또한 중요함

ITU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제도적 역량 보완이 필요한 국가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참고3>

방통위원장 발표 내용

-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된 사회에서의 **이용자피해 사례**는 기존처럼 방송·통신서비스 분야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앱스토어 등 **ICT 생태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
- 최근 한국에서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애플 등이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서비스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남
- 원격의료 등과 같이 **ICT 산업과 타 산업분야가 융합**되는 경우, 융합되는 대상 산업인 의료계와의 심각한 **마찰**이 나타나기도 함
- 한국은 초연결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이용자보호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자 위주에서 **생태계 모든 주체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 정책**으로 개선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ICT 이용자 보호 관련 법을 망라한 **포괄적인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적인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이용자보호대상, 사업자, 피해유형을 재분류(redefine)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하며,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범위를 확립하고 있음
-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또한, **융합산업**은 융합이 이루어지는 대상 산업 분야의 정책 부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ACMA 청장면담 및 MoU 체결

□ 일시/장소 : 2014. 7. 22(화) 14:30, ACMA 회의실

□ 면담자 : 크리스 채프먼 청장, 리처드 빈 부청장 등

□ 면담내용 * 방통위 3기 출범 및 위원 소개

- (콘텐츠 교류 관련) 아리랑 TV가 호주 위성채널을 통해 방송된다면 한국문화를 알리고, 8만 교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또한 한국드라마의 방영과 방송분야의 공동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개인정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방통 위에서는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삭제여부 확인을 위해 구글 본사를 방문하기도 함
 - 이용자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대응이 인상적이며, 호주는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담당하고 있음
- (이용자보호법) DCS, OTT 등 신규 서비스 등장함에 따라, 방송과 통신영역의 이용자 보호법을 통합해 이를 신규 서비스에도 적용하여 이용자 보호 노력 강화 추진
- (향후 정책교류) ACMA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람

IV. 베트남 출장 결과

1. 재무부장관 면담

□ 일시/장소 : 2014. 7. 24(수) 09:00, 재무부 회의실

□ 면담자 : 딘 띠엔 중 장관 등

□ 면담내용

- (양국 협력관계) 한국은 두 번째 개발원조국이며, 한국정부가 제공한 차관으로 정보통신, 전력 인프라 구축 등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또한 국제결혼을 통해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투자기업 보호) 최근 중국과의 갈등으로 발생한 시위로 외국투자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으나, 베트남 정부는 납세유예 및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등 베트남에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EBS 방송 진출) EBS와 VTV의 한국형 교육방송 설립을 위한 협력은 현재 베트남의 고급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선진교육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IT기술을 활용해 교육기회의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임. 재무부는 교육방송 설립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함
 - 농어촌 소외계층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EBS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활발히 프로그램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베트남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잘 지원하겠음
 - 교육방송이 성공하려면 재정적 지원이 중요함. 재무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람

2. 정보미디어부장관 면담

- 일시/장소 : 2014. 7. 24(수) 10:00, 정보미디어부 회의실
- 면담자 : 웅웬 박 손 장관, 국제협력국장, 무선전파국장 등
- 면담내용
 - (MoU 체결) 한국으로부터 베트남 IT분야 인력양성에 많은 협조를 받았음. 기존 MoU를 보완하여 인터넷 안보 등 인터넷 관련 정책, 이용자보호 분야에 대해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를 원함
 - 좀 더 발전된 형태로 MoU를 새롭게 체결하는 것에 동의함
 - (디지털 전환) 2015년 하노이 등 5개 도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계획임. 이미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한국정부와 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전수해주기를 기대함
 - 디지털 전환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한국의 우수한 방송 장비와 수신기 등 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ITU 교차지지) 한국에서 표준화총국장에 출마한 것으로 알고 있음. 베트남에서는 무선전파총국장에 출마할 예정인데, 양 국의 대표에 대해 상호 지지하기를 희망함
 - 지지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한국도 동광홍 국장을 지지하겠음
 - (EBS교육방송 진출 관련) EBS와 VTV와의 협력으로 한국의 교육방송 분야의 경험과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송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번 교육방송 설립에 전적인 지원을 약속함
 - 이번 협력에 방통위와 EBS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베트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송 노하우 전수를 위해 힘쓰겠음

3. VTV 사장 면담

- 일시/장소 : 2014. 7. 24(수) 11:30, VTV 회의실
- 면담자 : 쩌 빙 밍 사장 등
- 면담내용
 - (공동제작 관련) 프로그램 교환에 그치다가 최근 VTV는 CJ E&M과 35회 드라마를 공동제작중임. 더 나아가 여러 다른 국가에 상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제작하는 것을 상의하는 단계임
 - 공동제작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한국에서도 인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양국 방송사 간 관계가 더 발전적으로 되기를 바람
 - (EBS 교육방송 진출) VTV에서는 교육방송 채널을 위한 인력 및 필요한 장비를 준비 중이며, 정보미디어부의 인허가 문제는 위원장님과 면담으로 인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봄
 - EBS와 기술전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길 바라고 있으며, 교육방송 설립이 교육개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함. 이 사업을 통해 베트남 내 한국의 정보통신분야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
 - 이번 교육방송 개국이 베트남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람을 느낌. 한국의 교육방송을 모델로 선택한 것에 감사드리며, 방통위도 적극 후원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음

4. 부총리 면담

□ 일시/장소 : 2014. 7. 24(수) 14:00, 부총리실 회의실

□ 면담자 : 호앙 트롱 하이 부총리 등

□ 면담내용

- (양국 협력관계) 정보미디어부 장관과 만나 MoU 체결 합의했고, 한국의 세계적인 통신 IT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VTV와는 상호 공동제작을 통해 무대를 아세안으로 넓혀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음
 - 양국 간의 유사점이 많아 이를 토대로 서로 교류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부총리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베 협력 관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람**
- (EBS 교육방송 진출) EBS와 VTV와의 협력은 앞으로 베트남에서 많은 관심 속에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함. 베트남 정부는 **교육투자**를 국가정책으로 보고 있고, 가장 큰 정부예산을 들이고 있음. 이번 사업의 성공을 **바람**
 - 한국도 교육열이 높는데, EBS가 교육방송을 무료로 실시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효과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음
 - 베트남에 교육방송이 개국되면 이를 토대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한국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VTV의 **교육채널**이 성공적으로 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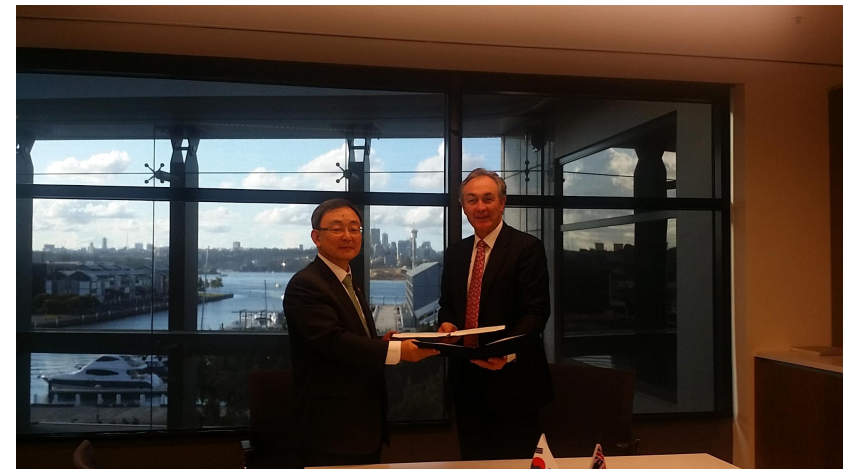
붙임

회의 발표 및 면담 사진

< 규제자라운드테이블 참석 - 제3세션 위원장 발표 >



< 방통위-ACMA MoU 체결 >



<베트남 부총리 면담> *우측 중앙 부총리



<베트남 정보미디어부 장관 면담>

